

## 진정한 정치학의 세 요소

李 壽 允 (한국교원대)

서언. ‘사회발전·역사진보를 위해서는 정치학이 개혁되어야 한다.’

참다운 사회발전의 조건은 올바른 정치학의 정립에 있다. 역사진보의 진정한 계기는 진리를 지향하는 정치학의 확립에 있다. 인간 사회생활에 있어서 정치·사회·경제 등은 신체에 해당된다. 학문은 영혼에 비유될 수 있다. 영혼과 신체는 서로 상응하지만 영혼이 건전하면 병든 신체도 건강하게 될 수 있다. 인간 사회생활에서 영혼의 역할을 담당하는 제학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학문은 바로 정치학이다. 그것은 정치학이 인간 사회생활에 있어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 정치를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정치적 존재이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그대로 방치하면 근본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러한 투쟁상태를 사회적 통합으로 이끌어 갈 정치의 역할은 인간사회 생활에 있어서 필연적이다. 인간 사회생활은 정치없이 유지·발전될 수 없다. 인간 사회생활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치와 결합되어 있다. 정치가 바로 설 때 인간 사회생활의 모든 문제는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다. 정치를 논하는 정치학이 올바르게 정립될 때 정치도 정상화될 수 있다. 정치학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은 궁극적으로 정치에 의해 통할된다. 인간 사회생활의 제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 정립된 모든 학문도 궁극적으로 정치학 연구의 초석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추상적 이론만을 위해 정립되는 학문은 있을 수 없다. 모든 학문은 근본적으로 인간 사회생활에 실천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추상적 이론과 구체적 실천은 언제·어디서나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는 추상성 속에서 맴도는 것같은 이론적 학문도 내용적으로는 실천적 학문의 토대가 된다. 추상성과 구체성의 통일

에 대한 인식은 진정한 학문 연구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서로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정립되는 듯이 보이는 학문의 각 분야는 모두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학문의 한 영역에 대한 연구가 시종 그 분야 안에서만 머무를 때는 그 연구는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다른 영역과의 연관성 속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그 경우에 있어서만 특정분야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학문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학문연구에 있어서 자연이론, 형이상학, 인식이론, 인간이론, 윤리이론, 교육이론, 정치이론, 역사이론, 예술이론, 종교이론, 철학이론 등은 모두 내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 모든 학문영역의 중심에 정치학이 서 있다. 모든 학문은 정치학 연구의 일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학문의 성과는 정치학의 내용으로 전화된다. 정치학은 모든 학문의 정점이다.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철학과 정치와 역사의 동일성이다. 철학과 정치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철학과 정치는 일치한다. 철학은 한 시대의 정치적 실천의 기준을 설정한다. 철학은 정치적 행동의 기준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철학은 언제·어디서나 사람들의 정치적 실천·정치적 행동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인간의 진정한 존재양태는 실천적 행동에 있다. 인간의 실천적 행동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의 철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철학원리에 따른 방식으로 정치적 실천·정치적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과 인간의 정치적 실천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철학은 인간의 정치적 행동과 밀접한 연관 속에 있다. 인간의 정치적 실천·정치적 행동은 바람직한 새로운 사회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취해진다. 철학이 정치적 현실을 변화시키고 사회발전을 촉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철학은 사회발전·역사진보를 방해하는 질곡이 된다. 철학과 정치만 결합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와 역사도 일치한다. 정치는 그대로 역사가 된다. 정치는 바로 역사이다. 정치적 실천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전개된다. 다양한 역사적 흐름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은 만인자유를 향한 정치적 실천이다. 정치는 바로 역사형성의 주체이다.

철학과 정치와 역사의 일치성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철학이론과 정치이론과 역사이론의 내용적 동일성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도출된다. 철학이론은 그대로 정치이론이 된다. 철학이론은 추상적 철학이론의 형태로 표현된 정치이론이다. 철학이론은 또한 역사인식과 굳게 결합되어 있다. 모든 철학이론적 대립

은 궁극적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역사인식 대립의 결과이다. 정치이론·역사이론과 결합되지 않는 철학이론은 의미가 없다. 정치이론도 철학이론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철학이론적 배경을 갖지 않는 정치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철학이론적 기초를 확립하지 않은 정치이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기형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무가치한 것이다. 정치이론과 역사이론도 깊은 내면적 상호관련성 속에 있다. 모든 정치이론 속에는 보수적 또는 진보적 역사의식을 토대로 한 역사이론이 내포되어 있다. 역사이론은 또한 철학이론적 토대 위에서만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 철학이론없이 역사이론은 정립될 수 없다. 철학이론과 정치이론과 역사이론은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 통일의 주체는 정치이론이다.

정치이론은 정치이데올로기이다. 철학이론도 철학이데올로기이다. 역사이론도 역사이데올로기이다. 모든 철학이론·정치이론·역사이론은 계급적 당파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사유는 그가 속한 집단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은 결코 고립된 개별적 존재로서 사유하지 않는다. 인간은 다양한 집단으로 분화되어 상호 반목·대립하면서 행동한다. 인간집단 사이의 화합이 구체화될 때도 그것은 오랜 집단적 반목·대립의 결과이다. 인간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사유도 집단적 반목·대립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인간의 사유와 행동을 가장 강력하게 규정하고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집단은 사회경제적 계급집단이다. 인간은 자신들이 소속되거나 속해 있지 않더라도 특별히 귀속감을 느끼는 사회경제적 계급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존의 현실을 변화시키거나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유지시키려고 한다. 모든 철학이론·정치이론·역사이론 속에는 사회경제적 계급집단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갈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계급갈등의 관점없이 인간사회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동태를 충실히 논하기 어렵다. 계급적 당파성에 대한 인식없이 철학이론·정치이론·역사이론을 추상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뜬 구름잡는 식의 허황된 노력이 될 뿐이다. 계급적 당파성에 대한 인식없이 제 철학이론·정치이론·역사이론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철학이론·정치이론·역사이론을 논하는데 있어서는 그 이론적 내용만을 연구해서는 아무 것도 충실히 이해될 수 없다. 제 철학이론·정치이론·역사이론의 계급적 당파성을 확인할 때 그 이론들의 구체적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모든 정치이론·철학이론·역사이론이

계급적 당파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이론·철학이론, 역사이론이 각각 진보적 이론과 보수적 이론으로 분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보수적 정치이론에는 보수적 철학이론·역사이론이 뒷받침하고 있다. 진보적 정치이론에는 진보적 철학이론·역사이론이 뒷받침하고 있다.

근세말에 이르기까지 정치학은 확실히 진보적 경향이였다. 그때까지의 역사진보에는 이성적 정치이론가들의 선도적 역할이 큰 기여를 했다. 현대에 와서 정치학의 주류는 보수화하고 있다. 현대 정치학이 내용적으로는 보수화하면서 표면적으로 내거는 명분은 지금까지의 정치학이 독자적인 학문적 대상과 방법을 확립하지 못하고 철학과 역사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던데 반하여 현대에 와서 정치학은 비로소 철학과 역사학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과학으로서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현대 정치학의 그러한 관점은 공허한 주장일 뿐이다. 정치학은 철학이론과 역사이론으로부터 독립될 수도 없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근세 말에 이르기까지의 진보적 정치학이 진보적 철학이론과 진보적 역사이론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면 현대의 보수적 정치학은 보수적 철학이론·보수적 역사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을 뿐이다.

독자적 과학을 정립했다는 현대 정치학은 인식론적으로 경험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경험론의 정치적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에 의해 현대 정치학의 실천적 성격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경험론은 정치적 보수주의의 철학적 표현이다. 경험론은 정치적 보수주의의 논리적이며 철학적인 기초이다. 경험론은 정치적 보수주의의 형성에 뚜렷이 기여한다. 그 구체적 표현을 Hume의 경험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의 경험론은 정치적 보수주의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의 경험론은 봉건귀족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여 사회경제적·정치적 주도권을 확립한 다음 더 이상의 사회발전과 역사진보를 거부하고 현상유지를 시도하는 영국의 대자산가계급의 정치적 관심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의 경험론은 새로운 사회발전과 역사진보를 바라지 않는 대자산가계급의 보수적 정치의식을 인식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자산가계급은 그들이 장악한 정치적·사회경제적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였다. 대자산가계급은 더 이상의 정치적 동요에 의해 그들의 지배적 지위가 약화되는 것을 막기에 부심하고 있었다. 대자산가계급의 그러한 정치적 요구를 철학적으로 수용한 사람이 바로 Hume이다. 그것은 인식론의 방향을 합리론에서 경험론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의 경험론은 대자산가 계급이 주도하는 정치적·사회경제적 현실을 그대로 긍정하면서 그들의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의식의 표현이다. 현대 정치학은 직접적으로 Hume의 경험론을 계승하고 있다. 현대의 정치학은 새로운 사회발전과 역사진보를 거부하는 보수적 정치이론이다.

정치학의 본래적 목적은 결코 사회적 현상유지에 있지 않다. 정치학 연구는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에 실천적으로 기여한다는 희망에 젖어 행해지는 것이 정상적이다. 정치학적 탐구의 참다운 원동력은 사회생활의 우울과 좌절을 가져 오는 사회경제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실천적 정열이다. 정치적 이상을 향한 실천적 정열없는 정치학은 무의미하다. 정치학의 본래적 사명은 현실개혁에 있다. 정치학은 현실개혁에 반드시 실천적으로 이바지 해야 한다. 현대 정치학이 사회발전과 역사진보 아닌 기존의 정치적·사회경제적 현상유지에만 관심을 갖게되는 것은 정치학적 탐구의 본래적 사명과 모순된다. 현대의 정치학은 개혁되어야 한다. 현대의 정치학은 정치이론의 보수화를 지양하고 진보적 정치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현대의 진보적 정치학은 진보적 철학이론·진보적 역사이론과 결합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치과학과 정치철학과 역사철학의 통일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 진정한 정치학·참다운 정치학은 정치과학과 정치철학과 역사철학의 유기적 통일을 지향할 때 정립될 수 있다. 진정한 정치학·참다운 정치학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철학적 합리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본질주의적 정치인식론에 입각하여 정치학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본질주의적 정치인식론은 본질적 진리를 향한 그 어떠한 차원높은 사유라 할지라도 그 출발은 경험적 현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변화하는 현상에 대한 진지한 해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질주의적 정치인식론은 경험적 현상과 역사적 변화를 토대로 하여 경험적 정치현상의 본질과 역사적 변화의 궁극목적을 인식한다. 본질주의적 정치인식론은 정치현상의 본질과 역사의 궁극목적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토대로 모든 정치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 I. ‘경험론적 정치과학은 보수적 정치학이다’

현대의 정치학은 경험론적 정치과학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경험론적 정치

과학은 경험론적 자연과학을 그 학문적 전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대의 정치학자들은 경험론적 정치과학이 확고하게 자리잡힌 자연과학에 비해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자들은 자연현상을 경험적·과학적으로 규명하는데 성공한 방법론을 철저히 변용하여 모방함으로써 정치과학도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자들은 정치학을 자연과학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자들은 정치학의 과학적 지위를 확신하고 있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자들은 정치학의 과학적 지위를 확립해 주는 경험이론의 성격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경험론적 정치과학자들은 자연과학에 비해 정치학이 불완전한 발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자들에 의하면 정치학의 현상태를 지금의 물리학에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치학을 물리학과 비교하려 한다면 정치학의 현상태를 물리학의 초기상태와 비교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자들이 정치학과 물리학의 학문적 발전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강조하기는 한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자들이 정치학의 물리학화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자들은 정치학이 자연과학과 같은 유형의 과학적 성숙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은 과학이 단순한 사실의 수집이나 관찰에 기초한 경험적 일반화로 구성된다는 관점에 입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은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들 사이의 관계를 탐지하며 그 자료들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경험적 일반화를 추출하고 있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은 충분한 경험적인 정치적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경험적 자료들이 지니고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하면 정치과학을 구성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경험적 일반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과학의 현실적 과제는 자료의 수집과 그것에 기초한 경험적 일반화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신념은 현대 정치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대에 들어와서 정치학적인 경험적 자료수집의 기법은 엄청나게 세련되었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은 통계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경험적 일반화에 입각한 이론체계를 수립한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은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한 경험적 일반화가 과학적 탐구의 정수라는 인식에 입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이 자연과학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궁극적으로 단

순한 자료수집과 그 자료 수집에 입각한 경험적 일반화의 정립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료수집과 그 자료에 입각한 경험적 일반화만으로 과학의 터전이 확실하게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다운 과학이 성립되려면 경험적 현상 모두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일반적 설명원리가 경험적 귀납을 토대로하여 가설적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가설적 형태로 제시된 최고의 일반적 설명이론이 경험에 의해 객관적으로 검증되면 될수록 그것은 바로 최고의 일반적 설명이론의 개발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단순한 자료수집에 입각한 경험적 일반화는 다만 일반적인 경험적 경향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의 정립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에 근거한 특정한 영역에서의 경험적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치과학이 제대로 자연과학화하려면 자료수집 자체의 기준이 되고 그 자료들을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자료에 의해 정립된 특정한 영역에서의 경험적 일반화가 내용적 의미와 객관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검증 가능한 최고의 일반적 설명이론의 개발이 중요하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에 있어서는 자연과학에서와 같은 최고의 일반적인 경험적 설명이론·경험적 설명원리의 사례로 지적될 수 있는 대연구는 전혀 없다. 물론 경험론적 정치과학에도 기능주의이론, 기계적 균형이론, 체계이론 등 그런 대로 일반적인 경험적 설명이론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론들이 있기는 하다.

반형이상학적 입장을 취하면서 단순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 계량적 방법을 활용하여 그 자료들에 기초한 경험적 일반화를 제시하는 경험론적 정치과학이 정치적 진보주의를 배격하고 정치적 보수주의를 반영하는 것은 분명하다. 기능주의이론 등 일반적인 경험적 설명이론들에 대해서도 그 방법론적·이데올로기적 부적절성을 밝히는 비판들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증대하고 있다. 기능주의 이론 등은 경험적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사회변동을 해명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이론이라고 비판되고 있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의 기초에 점차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에 의해 일반적인 경험적 설명이론으로 발전되어 온 것들의 대부분이 위장된 현상유지적인 보수적 정치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모든 정치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험적 설명이론을 개발한다는 경험론적 정치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제안하는 가정들과 주장들이 경험적인 검증·확인·논박의 기준에 의

해서만 제약받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자들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제안한 경험론적 정치과학의 이론들은 실제적으로 무엇이 옳고 좋으며 정당한 것인가에 관한 그 자체의 이데올로기적 판단을 은폐시키고 있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의 비판가들에 의하면 경험론적 정치과학이 주장하는 가치중립성은 그 자체가 기존 사회의 현상유지를 옹호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은 보수적 경향의 이데올로기를 그 자체 내포하고 있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의 자연과학적 방법은 윤리적 감정이나 가치지향적 동기를 가진 인간의 정치적 행동을 분석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정치학은 원래 현실정치의 움직임에 대해 가치판단도 내려야 한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이 주장하는 가치중립성은 인정될 수 없다. 실제로 심각한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중대한 정치문제는 경험론적 정치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계량화될 수 없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에서는 그 사용하는 방법의 편의를 기준으로하여 연구과제가 선정되는 결과로 인해 실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문제는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은 경험론적 방법상의 논의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정치사회가 당면한 중대한 본질적 문제들을 등한시하게 된다. 경험론적인 정치과학 연구는 대체적으로 정치적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경험론적 자연과학의 방법을 정치현상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여 정치학이 하나의 독자적 과학으로 발돋움해 나가야 한다는 경험론적 정치과학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Comte의 실증주의를 계승한 것이다. 그의 실증주의의 정치적 의미를 밝히는 것에 의해 경험론적 정치과학의 보수적 성격은 더욱 뚜렷이 부각될 수 있다. Comte에 의하면 모든 인간사회에 있어서는富力의 집적 필연적이다. 그 집적된 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사회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의 실증주의는 부를 지닌 경제적 강자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현실을 존중할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의 실증주의는 왕정복고 시대의 산업혁명 진전에 상응한 프랑스 대자산가 계급의 정치적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의 실증주의는 그 시대를 주도하는 대산업자본가 계급의 변영과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실증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색채를 상당히 농후하게 띠고 있다.

Comte는 경험적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과학은 단지 경험적 사실과 경험적 현상에 대한 기술을 의미한다. 그는 경험적 사실과 현상에 대한 분석과 정리에 주력한다. 그는 경험적 사실의 수집과 정리에 의하여 일반법칙을 추구한다. 그의 실증주의에 의하면 과학은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성립된다. 첫 번째 원칙은 현상적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을 가능한 한 많은 사실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일반적 법칙의 구성·정립이다. 세부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와 사실에 대한 경험적 확인은 실증적·경험적 과학연구의 일단계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경험적으로 확인된 개별적 사실들을 그것 자체보다 더 중요하고 진정으로 의미있는 일반적 법칙 정립의 자료로서 활용해야 한다. Comte의 실증주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일반법칙은 물질적 힘에 의한 질서의 법칙이다. 그 법칙에 의하면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회적 사실은 모두 물질적 힘에 의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무질서에 대한 사회적 강자의 지배를 통해 이룩된다. 그의 실증주의는 물질적 힘에 입각하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혁명기의 대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의식을 집약하고 있다. 그의 실증주의의 최대목표는 산업자본가 계급이 주도하는 산업사회 체계의 조직화였다.

Comte의 실증주의는 주어진 경험적 현상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인정하는 모든 형이상학과 투쟁한다. 그의 실증주의에 의해 모든 형이상학적 사유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비판된다. 철학적 시야와 진리를 축소시키려는 그의 실증주의의 집중된 노력은 기존의 사회현실을 보존하는 데 집중된다. 그의 실증주의에 의하면 주어진 현실에 대한 감각적 경험아닌 새로운 이성적 진리 인식의 가능성은 인정될 수 없다. 새로운 이성적 진리인식을 주장하는 그 어떠한 형식의 형이상학적 이론도 진전시켜서는 안된다. 가능성의 세계에 대한 모든 형이상학적 설명을 배제하고 철저히 사회적 현실에 대한 경험적 기술만을 행해야 한다. 그의 실증주의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배격하고 기존 사회현실의 모든 가치를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더욱 완전한 지적 수단의 확립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 그의 실증주의는 표면적·형식적으로는 진보와 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는 “질서를 기초로, 진보를 목표로”라는 구호도 내걸고 있다. 그의 실증주의는 내용적·실제적으로는 산업사회의 기존질서

의 절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의 실증주의는 대자산가 계급이 주도하는 산업사회의 예견할 수 있는 미래의 질적 변화를 견제한다는 필요에 입각한 이론이다.

Comte의 실증주의는 두 방향으로 발전한다. 그 한 방향은 Mach주의·논리적 실증주의·행태주의 등 비판적 실증주의에로의 발전이다. 다른 한 방향은 Darwin주의·사회적 진화론·구조기능주의 등 진화론적 실증주의에로의 발전이다. 비판적 실증주의에 입각한 경험론적 정치과학은 감각적 관찰과 수량적 계량화라는 원칙 아래 경험적 사실의 수집을 토대로 경험적 일반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진화론적 실증주의에 입각한 정치과학은 생물학을 토대로 경험적 정치현상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론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비판적 실증주의에 입각하는 정치과학과 진화론적 실증주의를 토대로 하는 정치과학은 함께 기존의 산업사회적 질서를 절대적으로 고수하려는 정치적 보수주의를 표현하고 있다. 두 경향의 실증주의에 입각하는 경험론적 정치과학은 모두 보수적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다.

## II. ‘진보적 정치학의 참된 기초는 정치철학에 있다’

인간의 진정한 존재양태는 실천적 행동에 있다. 인간의 실천적 행동은 그대로 인간의 정치적 행동이다. 인간의 실천적 행동은 경험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의 실천적 행동은 주어진 현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실현을 추구해 나간다. 인간의 실천적 행동은 변화와 진보를 지향한다. 인간은 현재의 상태 그대로 지속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현재가 아닌 바의 것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존재이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실천적 행동의 본래적 의미이다. 인간은 동물처럼 언제나 동일한 것·경험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적인 것·주어진 그대로의 것·불변적인 것·현재 있는 바의 것으로 존립하지 않는다. 인간은 변화적·진보적 존재이다. 인간의 실천적 행동은 비이성적·비합리적 현실의 변화를 통해 바람직한 새로운 상태를 가져오기 위해 취해진다. 정치란 바로 인간의 실천적 행동의 정수를 표현하다. 정치란 주어진 경험적 현실 그대로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실현해

가는 데 그 참 뜻·본래적 의의가 있다. 정치학은 인간 사회생활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가는 주체이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닌 정치학을 논하는 정치학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배경하고 오직 경험적인 것만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학에 대한 모독이다. 정치학은 경험적 세계 안에서만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정치학에 대한 핍박이다. 정치학을 경험과학화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대중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프랑스혁명은 계급대립·투쟁의 대폭발이었다. 프랑스혁명 이후에는 계급대립·계급투쟁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대중들의 사회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한 정치운동은 활발해졌다. 대중들의 정치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정치이론은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 사회적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었다. 근세사회와 현대사회를 주도해 오고 있는 대자산가계급은 그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수호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게 되었다. 그들의 수호의지는 실천적 영역뿐만 아니라 지적·이론적 영역에서도 철저하게 표출되었다.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대자산가계급의 의지가 정치학의 영역에서 표현된 것이 바로 정치학의 경험과학화 현상이다. 대산업자본가계급·대자산가계급은 자신들의 기득권·압도적 이익을 확보해 주는 기존의 경험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질서를 비판하는 진보적 정치이론들을 의미없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하여 학문의 영역에서 추방해 낼 수 있는 정치이론의 정립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다. 대자산가계급의 요구에 부응하여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 경험론적 정치과학이다. 경험론적 정치학은 모든 진보적 정치학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학문적으로 무의미·무가치한 철학 또는 형이상학에 토대를 둔 공허한 이론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경험론적 정치학은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진보적 정치학을 정치학의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말았다.

현대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대산업자본가 계급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는 경험론적 정치학을 통해 정치학을 왜곡화·왜소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사회생활에 대한 이론적 연구 가운데 가장 실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정치학이 제대로 정치현실을 설명하면 사람들은 그 정치이론에 따라 사회를 변화·개혁시키려고 할 것이다. 사람

들은 이론적으로 바르게 알면 그것을 실천하려는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된다. 인간정신·인간의지의 본질은 이론과 실천의 통일에 있다.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실천과 직접 결합될 수 있는 정치학이 기존 사회유지를 위한 이론만을 전개한다면 그것은 대산업자본가 계급·대자본가 계급의 사회발전·역사진보를 차단하고 기존 사회현실을 고수하려는 의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다. 현대의 정치학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자각적·무자각적으로 대자본가 계급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왜곡화·왜소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학은 유명무실하게 되어갔다. 현대사회적 상황에서 정치학은 왜소화하게 되었다. 현대 정치학은 인간 사회생활에서 진실로 중요한 사실·의의있는 내용을 정치학적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었다. 현대정치학은 기존사회 질서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현대 정치학은 기존사회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이론정립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대 정치학은 올바른 정치연구가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의 이론적 기반으로 틀림없이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대자본가 계급의 염려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현대 정치학은 올바른 정치연구를 방해하려는 대자본가 계급의 적극적 의지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현대 정치학은 기존의 정치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시종하게 되었다. 현대 정치학은 기존 사회체제의 안정과 기계적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기존질서를 옹호하고 있다. 현대 정치학은 기존 사회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이 공허한 철학적 환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지적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존질서를 옹호하고 있다. 현대 정치학에 와서 정치학은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되었다. 현대정치학은 원래 제 사회계급 사이의 경제적·정치적 투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현대 정치학은 그 투쟁과 관련하여 진보와 개혁보다는 보수와 현상유지의 입장에 확고히 서 있다. 현대 정치학은 역사의 주인의 역할이 아니라 기존현실의 추종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현대 정치학은 기존현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무비판적으로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선두에 서서 사회와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은 결코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대 정치학은 기존의 경험적 사회체제를 정당화하는 과제에 몰두하고 있다.

인간사회에서 물질적 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지적 힘뿐이다. 사회의 물질적 힘은 자신에 대해 대립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지적 힘뿐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물질적 힘은 당연히 지적 힘까지도 지배하려고 한다. 물질적 힘이 지적 힘까지 지배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정체된다. 지적 힘이 자신을 지배하려는 물질적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발전하게 된다. 지적 힘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된다. 인간은 자기의식적 존재이다. 인간의 자기의식적 자각을 통해서 사회는 발전하고 역사는 진보한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주관적 의식과 객관적 존재의 상호매개적 통일 속에서 전개된다. 물론 객관적 존재가 주관적 의식을 규정한다.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측면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주관적 의식이 객관적 존재를 규정하면서 그것을 자각적 의식내용에 적합하도록 변화시켜가는 측면이 인간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위대성이 있다. 지식인의 사명은 인간의 자기의식적 자각을 도와주고 선도하여 사회발전과 역사진보를 촉진하는데 있다. 인간사회에서 지식인 역할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지식인은 올바른 의미에서의 정치적 지식인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올바른 의미의 정치적 지식인이란 이성적 진리를 사랑하면서 그 이성적 진리가 사회 속에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이를 위해 사람들의 자기의식적 자각을 도와주는 지식인을 뜻한다. 전형적 지식인들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합리론에 과학적 합리론과 철학적 합리론이 있듯이 이성에도 과학적 이성과 철학적 이성이 있다. 전형적 지식인들은 철학적 이성의 소유자들이다. 철학적 이성의 본질은 대립물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조화는 철학적 이성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우주만물의 본질·역사의 본질이기도 하다. 인류역사는 부조화에서 조화으로, 좁은 범위의 조화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조화으로 진보해 간다. 바로 그것이 역사진보의 방향이다. 역사진보의 궁극적 이념은 대립물 사이의 유기적 조화를 기초로 한 사회통합을 통해 만민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다. 모든 지식인들은 역사의식을 가진 올바른 의미의 정치적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정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올바른 정치적 지식인들의 선두에 서는 정치학적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학은 물론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학을 의미한다. 정치학은 오랜 침체를 벗어 던지고 그 본래의 학문적 사명을 되찾아 나가야 한다.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의 조건은 지적 개혁에 있다.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의 참다운 계기는 학문적·지적 수준의 발전에 있다. 지

적·학문적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학문의 정점인 정치학이 담지해야 할 학문적 사명이다. 사회발전·역사진보를 위해 정치학은 개혁되어야 한다. 정치학 개혁의 방향은 정치철학의 부흥에 있다. 정치철학은 진보적 정치학의 참된 기초이다. 정치철학은 경험론적 정치학이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학의 연구영역에서 추방한 국가론을 부활시킬 것이다. 정치의 현상이 아니라 정치의 본질을 논하는 정치철학은 정치의 본질과 국가의 본질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치철학의 부흥은 필연적으로 국가론의 부활을 가져온다. 정치철학은 원래 국가론을 중심으로 권력과 자유의 상호관계 등 정치의 본질을 연구한다.

정치철학은 인식론적으로 경험론에 근거하지 않고 합리론을 토대로 한다. 합리론은 철학적 합리론과 과학적 합리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철학적 합리론은 인식론적 본질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철학적 합리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합리론과 경험론의 구분은 단순히 인식론적 차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합리론은 정치적 진보주의의 인식론적 토대이다. 경험론은 정치적 보수주의의 인식론적 토대이다. 합리론은 감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험적 현상의 기저에는 필연적 법칙·본질적 원리가 존재하고 있고 그 필연적 법칙·본질적 진리는 인간이성·인간오성에 의해 보편적·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합리론의 그러한 관점이 정치학의 영역에서 표현될 때 그것은 서로 상이한 정치적 관습·다양한 정치문화의 기저에는 보편적·필연적인 자연법적 원리가 존재하고 인간은 누구나 그 자연법적 원리를 이성적 직관에 의해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나타난다. 경험론은 감각적 현상의 기저에 필연적 법칙·본질적 원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험론은 인간지식의 참다운 근거는 감각적 경험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경험론에 의하면 인간은 경험에 의해 감각적 현상·주어진 현상에 대해서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경험론의 그러한 관점이 정치학의 영역에서 표현될 때 그것은 자연법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험론이 합리론을 배척하는 데 반해서 합리론은 경험을 존중한다. 합리론은 경험적 귀납의 집적을 토대로 한 이성적 직관을 통해 인간 누구나 필연적 법칙·본질적 진리를 보편적·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합리론에 인식론적 토대를 두고 있는 자연법적 원리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진

보주의·진보적 정치신조를 표현하고 있다. 자연법적 원리에 입각한 정치적 진보주의에 의하면 기존의 경험적 사회질서는 자연법적 원리에 합치될 때까지 개선·개혁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철학은 자연법적 원리를 기본적인 이념·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다. 정치철학은 경험적 정치과정을 통해 자연법적 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다운 정치철학은 사회적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고 사회적 조화와 통일·사회적 통합을 구현하는 것을 정치의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치철학은 정치적 진보방향을 제시해주는 정치학이다. 진보적 정치학의 기초는 정치철학에 있다.

### Ⅲ. ‘역사철학적 토대가 없는 정치학은 의미가 없다’

현대 경험론적 정치학을 주도하고 있는 실증주의의 가장 큰 특성은 반역사 철학적인 데 있다. 실증주의가 형이상학·철학을 학문의 영역에서 추방한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가능성의 세계를 추구하는 형이상학·본질적 원리를 탐구하는 철학이 역사진보를 인정하는 역사철학의 이론적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대자산가 계급이 주도하는 현대 산업사회 이후의 더 이상의 역사진보를 거부하는 실증주의의 정치적 의도는 필연적으로 정치학에서 역사철학적 문제의식을 배제하게 된다. 그것은 정치학의 본래적 의미를 철저히 왜곡시키는 것이다. 정치학은 역사철학과 결합될 때 그 진정한 학문적 생명력을 보유할 수 있다. 역사철학없는 정치학은 학문적 의미가 없다. 정치학은 무엇보다도 먼저 강렬한 역사의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올바른 역사의식은 기존사회가 새롭게 변화해 가야 한다는 의식이다. 올바른 역사의식은 사회현실의 모순에 대한 자각적 의식이다. 올바른 역사의식은 사회비판 의식이다. 올바른 역사의식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의식이다. 올바른 역사의식은 역사철학적 인식의 토대 위에서만 확립될 수 있다. 정치학은 역사학이다. 정치과정은 바로 역사과정이다. 정치가 역사 속에서 전개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정치학과 역사철학의 결합과 통일은 너무나 당연하다. 현대 정치학에 있어서는 반역사철학적 정치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대의 경험론적 정치학은 기존의 정치사회가 새로운 단계로 진보해 가고

있으며 또한 진보해 가야 한다는 역사철학적 의식을 거부한다. 경험론적 정치학이 역사인식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험론적 정치학은 진보적 역사철학은 배제하면서도 그 자체에 적합한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다. 사실 모든 정치학적 탐구는 각각 그 나름대로의 역사의식과 결합되게 마련이다. 경험론적 정치학은 현대 산업사회적 정치사회가 역사진보의 완성·역사진화의 극한이라는 역사의식 위에서 있다. 경험론적 정치학의 역사의식은 현존 사회질서를 역사진보의 완성이로 간주하는 현상유지적인 것이다. 경험론적 정치학은 현대 선진 산업사회적 사회질서에서 정치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일반 원리를 찾고 있다. 경험론적 정치학은 바로 그 원리를 고수하면서 그 이상의 새로운 원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경험론적 정치학에 의하면 더 이상의 새로운 역사진보는 없다. 경험론적 정치학은 지금까지의 경험적 정치현실에서 실현된 역사진보·역사진화에 만족한다. 경험론 정치학이 토대로 하고 있는 역사의식의 핵심은 가장 선진적인 단계로 진입한 고도 산업사회에서의 경험적 진리와 그 정치적 현실을 고수하는 데 있다. 경험론적 정치학이 토대로 하고 있는 역사의식의 근본적 의미는 선진 산업사회적 정치현실을 극복하는 더 이상의 새로운 역사진보를 거부하는 데 있다. 경험론적 정치학은 현재의 가장 선진적 산업사회의 정치현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한 역사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경험론적 정치학의 현상고수적 역사의식은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이다.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은 철저한 개인주의적 역사인식이다. 개인의 정치적 행태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행태론적 정치학은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에 입각하고 있다.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은 개인이 그 누구나 고통은 회피하고 쾌락은 마음껏 추구해도 저절로·예정조화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다.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은 내용적으로는 이기적 쾌락만을 극한적으로 추구하는 대산업자본가 계급·대자산가 계급의 위축된 양심을 자위하는 수단일 뿐이다.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에 대해 예정조화적 자유방임주의의 구체적 결과는 소수의 최대행복과 다수의 최대불행이라는 비판이 대두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경험론적 정치학은 이러한 비판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인식을 정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경험론적 정치학의 두 번째 역사인식이 대두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진화론적 역사인

식이다. 사회진화론적 역사인식은 생물학적인 사회체제·정치체제적 역사인식이다. 생물학적 사회체제·정치체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기능주의적 정치학은 사회진화론적 역사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사회진화론적 역사인식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강자가 약자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사회적·정치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사회진화론적 역사인식은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사회 경제적강자를 옹호한다.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은 역사진보를 인정하는 역사철학에 무관심하였다. 역사철학은 역사진보를 실현해 나가는 역사의 근본원리와 본질에 관한 물음이다.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은 현대 산업사회를 자신과 낙관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안정된 사회라고 간주한다.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현대 산업사회의 경험적 현실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이다.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경험적 사실의 근본원리와 본질에 관해 문제의식을 제기한다거나 그것에 답한다는 경향은 미약하다.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은 사물의 본질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역사적 제문제에 대해서도 그 근본원리와 같은 것에 관해서는 별다른 학문적 흥미를 갖지 않는다.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의 지적 배경에는 역사진보를 인정하는 역사철학이 부재한다.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이 역사진보를 긍정하는 역사철학적 탐구에 몰입하기를 거부했던 이유는 역사 속에 어떠한 본질적 원리와 근본적 의미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에 의하면 역사의 본질적 원리와 근본적 의미는 논의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현존의 산업사회적 정치 질서가 바로 그 최선의 역사적 원리와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역사철학이 결여된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은 자유방임의 경제이론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오직 자기자신만의 개인적 이기적 쾌락·자기자신의 일에만 힘써 나가야 한다. 사회전체의 조화에 대해서는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살펴 주신다.”는 자유방임적 원리가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의 기본원칙이다.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은 사회적 현실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어 저절로 조화를 실현해 가고 있다는 확신에 입각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정치현실은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정조화적 안정과 질서의 체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열한 갈등과 격렬한 생존경쟁의場이었다. 경험론적 정치학은 자유방임주의적인 낙관적 역사인식에만 의지

할 수 없었다. 경험론적 정치학은 기존의 선진 산업사회적 정치질서를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인식을 찾아 나섰다. 그것이 바로 사회진화론적 역사인식이다.

사회진화론적 역사인식은 Spencer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시대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갈등과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시기였다. 그 당시 산업사회는 산업혁명에 의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 불합리성을 도처에서 드러내고 있었다. Spencer가 활동하던 당시의 산업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에게 해야 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황금에 도취된 산업자본가 계급은 이윤획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산업자본가 계급은 경쟁적으로 노동자계급을 무자비하게 수탈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살 길을 찾아 거리와 도시를 방황하게 되었다. 거리마다 일자리와 먹을 것을 구걸하는 빈민의 인파가 물결치게 되었다. 사방에서 사회악이 횡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광범한 논의들이 오고 가게 되었다. 사회악의 원인과 그 해소책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빈민구제사업을 널리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재산의 불평등한 소유와 사유재산제도가 빈곤의 원인이라는 인식하에 불평등한 소유와 사유재산제의 철폐를 촉구하는 움직임들이 활기를 띠고 나타났다. 무정부주의자들은 기존의 사회경제 제도를 변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소소유제의 원칙하에서 재산과 인권과 교육이 평등하게 부여되는 이상적 평등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사회주의도 유포되고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은 빈곤과 사회악의 모든 원인을 사유재산제에서 찾았다. 그들은 빈곤·탐욕·출세욕 등 사회악을 뿌리뽑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혁명과 함께 급속히 늘어난 빈민대중은 생존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Spencer는 그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빈민구제를 역설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반대하는 모든 주장을 거부하기 위해 사회적 진화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Darwin의 생존경쟁에 입각한 생물학적 진화론을 열렬하게 환영하였다. 그는 Darwin의 이론을 충실히 따랐다. 그는 Darwin주의를 사회적 진화론으로 발전시켰다. Spencer에 의하면 자연에는 경험적으로 확인가능한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이 존재한다. 그는 사회에도 그 자연법칙과 동일한 내용의 결정적인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적자생

존에 입각한 진화의 법칙이다. 적자생존의 원칙을 강조하는 사회적 진화론은 그때까지 어떻게든 생존경쟁과정에서 승리한 者들은 패배한 者들보다 사회에 더욱 적합하고 우수한 존재라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그 시대의 탐욕적 개인주의를 정당화시켜 주었다. 그것은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자본가 계급의 사회경제적 성공을 향한 정력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합리화시켜 주었다. Spencer는 Darwin의 생존경쟁을 사회로 끌어들이며 빈민들은 생존경쟁에서 실패한 바보같은 존재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사회경제적 강자의 약자에 대한 우위를 정당화하였다. 그에 의하면 생존경쟁에서 패배한 노동자계급이 승리한 자본가계급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Spencer의 사회적 진화론은 그 자신의 역사관에서 완성된다. 그에 의하면 산업자본가 계급이 주도하는 현대 산업사회는 사회적 진화·역사적 진보가 완성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이다. 현대 산업사회는 사회진화·역사진보의 극한이다. 그는 현존 산업사회를 사회발전·역사진보의 최종단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현대 산업사회는 각 사회계층적 기능의 기계적 균형을 실현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평형상태에 도달해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모든 투쟁은 사회적 균형의 파괴를 의미한다. Spencer의 현대 산업사회에 대한 인식의 표현인 생물학적 사회유기체이론은 극단적인 정치적 보수주의를 표현하고 있다. 그의 생물학적 사회유기체이론은 사회적 현상을 생물학적 현상으로 취급한다. 그에 의하면 사회는 생물과 유사한 유기체이다. 사회에서의 계급적·계층적 구분은 생물의 서로 다른 기관이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자연적인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의 의지를 따르고 그 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생물적 사회유기체의 각 부분이 그 두뇌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현존 산업사회에서의 각 사회계층은 그 현재적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 사회적 진화·역사적 진보가 완성된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각 사회계층은 그 불변하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과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는 Spencer의 사회진화론적 역사인식은 구조기능주의적인 경험론적 정치학을 발전시킨다. 구조기능주의에 있어서는 Spencer의 사회적 진화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존 산업사회는 사회진화의 극한·역사진보의 완성이라고 인식된다. 구조기능주의는 현존 선진 산업사회의 사회체제·정치현실의 유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구조기능주의에 의하면 사회체제 또는 사회적인 구조적 전체를 이루는 각 구성요소·각 사회계층

은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제각기의 기능과 역할만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어떠한 사회적 갈등과 변화적 요인도 기존 산업사회의 안정적 균형상태에 역기능적인 것이다. 그러한 요소들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자유방임주의적 역사인식을 토대로 하는 정치행태론적 정치학과 사회진화론적 역사인식을 토대로 하는 구조기능주의적 정치학은 현대 산업사회적 사회질서 유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험론적 정치학은 질서가 인간 사회생활의 근본이라고 역설한다. 경험론적 정치학은 현대 산업사회적 사회질서 확립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킨다. 경험론적 정치학은 현대 산업사회의 경험적 사회질서의 근본원리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비판적 물음을 배제한다. 경험론적 정치학은 현대산업사회적 사회질서보다 더 나아간 역사진보를 인정하지 않는다. 경험론적 정치학이 생각하듯이 현대 산업사회적 사회질서가 역사진보의 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역사는 만인자유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보해가야 한다. 역사는 끊임없이 확대되어 가는 자유구현의 과정이다. 역사진보의 궁극적 목적은 만인자유의 실현에 있다. 만인의 자유실현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외적 강제와 부재라는 만인의 형식적·소극적 자유이념은 실현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잠재적 가능성의 실현이라는 만인의 내용적·적극적 자유이념은 구현되지 않고 있다. 형식과 내용을 통일한 참다운 만인자유이념은 사회적 조화를 토대로 한 사회통합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역사단계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 진정한 만인자유이념으로 향한 역사진보를 인정하는 역사철학이 결여된 경험론적 정치학은 참된 정치학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참된 정치학의 목적은 결코 사회적 현상유지에 있지 않다. 정치학은 반드시 현실개혁에 실천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역사진보에 기여해야 한다. 정치학에 대해 역사진보를 향한 사회현실의 개혁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역사철학이다.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의 지표는 역사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경험론적 정치학의 근본적 특성은 반역사철학적인 데 있다. 정치철학의 근본적 특성은 역사철학과 결합되는 데 있다. 정치철학의 참된 기초는 역사철학에 있다.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정치철학은 객관적인 정치적 이상을 향한 역사진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경험론적 정치과학만으로서의 참된 정치학이 정립될 수 없다. 경험론적 정

치과학은 정치철학과 결합되어야 한다. 정치철학은 경험론적 정치과학이 위주로 하는 사실분석을 존중한다. 사실분석을 통해 객관적 가치를 보편적 이성의 힘에 의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철학의 기본입장이다. 정치철학은 객관적 가치판단을 지향한다. 정치철학이 지향하는 가치판단을 주관적 가치판단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원래 철학은 엄밀한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지 주관적 恣意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객관적 가치판단을 지향하는 것이 정치철학이다. 주관적 가치판단을 지향하는 것은 정치철학이 아니라 政治思想이다. 경험론적 정치과학은 정치철학을 배척하지만 정치철학은 경험론적 정치과학을 배척하지 않는다. 정치적 진리는 정치적 경험의 귀납적 누적을 통한 이성적 직관에 의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철학의 기본적인 정치인식론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참된 정치학은 정치과학과 정치철학의 통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된 정치학은 그 兩者의 통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정치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만인자유의 실현에 있다. 정치의 근본을 논하는 참된 정치학은 만인자유이념 구현으로 향한 역사진보를 지향하는 역사철학과 결합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과학과 정치철학과 역사철학은 진정한 정치학의 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과학과 정치철학과 역사철학을 유기적·체계적으로 결합·통일한 진정한 정치학이 정립될 때 사회발전과 역사진보를 향한 인간의 실천적 행동을 지도한다는 정치학의 참다운 모습이 되살아나게 되고 정치학은 그 본래적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사회발전과 역사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참된 정치학·진정한 정치학의 정립은 올바른 의미에서의 정치적 지식인들을 선도해 나가야 할 정치학적 지식인들의 시대적 사명이다.

## &lt;참고문헌&gt;

- 이수윤, 『社會思想史』, 서울: 법문사, 1992.  
\_\_\_\_\_, 『歷史哲學』, 서울: 법문사, 1993.  
\_\_\_\_\_, 『西洋哲學史』, 서울: 법문사, 1994.  
\_\_\_\_\_, 『政治哲學』, 서울: 법문사, 1995.  
\_\_\_\_\_, 『哲學概論』, 서울: 법문사, 1996.